

2 종합

서울캠 7년만에 비대위 자치사업중단위기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서울캠 총학생회 선거가 ‘입후보자 없음’으로 무산돼 1월부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7년 만의 비대위 체제다.

서울캠 마지막 비대위 체제는 2018년이였다. 그해 전년도 이뤄진 총학 선거에서 박원규(사학 2014) 정후보와 송태현(경영학 2014) 부후보가 단선으로 출마했다. 하지만 찬성률 50.8%로, 당선에 필요한 2/3 찬성표를 받지 못해 낙선했다. 이에 당해 연도 5월까지 비대위가 운영됐다. 당시 비대위장은 총동아리연합회(총동연) 비대위장이 맡았다. 비대위는 기존 총학 권한을 그대로 수행해 형식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하지만 공약을 내걸 수 없어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

서울캠 총학 회칙 제8장 39조 1항에 따르면 당해 연도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에서 호선된 1인이 비대위장이 된다. 하지만 중운위 구성원이 총학 비대위장을 역임하는 문제도 있다. 조현우(경영학 2021) 경영대 학생회장은 “전체 구성원을 위한 역할 수행이 가장 큰 부담이 될 것 같다”며 “자신이 맡고 있는 단과대 학생도 생각해야 하고, 동시에 전체 학생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역할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운위 구성원은 총학 회장단, 단과대 학생회장, 총동연장, 총유학생회장,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장, 후마니타스칼리지위원회장이 다.

대표성 문제 역시 우려된다. 조 회장은 “비대위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대표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당장의 입학식, 학사 관련 사안을 학생 대표자로서 안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은 혼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재학생과 신입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올바른 비대위에 대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위 체제가 아니더라도 전년도 총학이 임기를 연장했던 사례도 존재했다. 국제캠은 2022년 총학 선거가 후보자 미등록으로 무산돼 전년도 총학이 임기를 연장했다. 이에 2021년도 총학 ‘ON’이 임기연장을 해 2022년까지 직무를 수행했다. 원래는 중운위원 중 한 명이 비대위장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중운위에서 논의한 결과, 단과대 학생회장과 총학 비대위장을 병행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 판단했다. 그 결과, 당시 수료생 신분이었던 전완주(일본어학 2015) 총학생회장과 김정환(디지털콘텐츠학 2015) 부총학생회장이 임기를 연장했다.

서울캠을 제외하고도 서울·경기권 주요 17개 대학 중 4개 대학의 총학 선거가 무산됐다. 고려대, 한양대는 입후보자 미등록으로 인해 총학 선거가 무산됐고 서울시립대는 개표 정족수 미달, 국민대는 등록 서류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선거가 무산됐다.

〈서울캠〉

선거구	선본명	정/부후보자
자율전공학부	H:OUR	장: 정예나(자율전공학 2024) 부: 전세준(자율전공학 2024)
	연	장: 손상혁(자율전공학 2024) 부: 이세희(자율전공학부 2024)
미술대학	dot	장: 김가빈(회화 2022) 부: 원동하(한국화 2022)
	여백	장: 김용준(조소 2021) 부: 이예신(회화 2023)
음악대학	파도	장: 노해영(기악 2023) 정후보 부: 박지운(기악 2023) 부후보
	이름	장: 소재희(작곡 2021) 부: 김소현(피아노 2022)
문과대학	RE:VIBE	장: 양우혁(응용영어통번역학 2021) 부: 김세린(국어국문학 2022)
정경대학	더나은	장: 신하균(사회학 2023) 부: 엄해솔(무역학 2023)

〈국제캠〉

선거구	선본명	정/부후보자
공과대학	EVER	장: 장호재(건축학 2018) 부: 정윤재(기계공학 2020)
외국어대학	그름	장: 김민혁(중국어학 2021) 부: 김하람(일본어학 2021)
	here	장: 윤동현(중국어학 2022) 부: 이수연(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23)
체육대학	Rally	장: 박성민(체육학 2023) 부: 이한나(스포츠지도학 2022)
생명과학대학	초록	장: 김영현(식품생명공학 2020) 부: 이영현(한방생명공학 2021)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2025학년도 57대 서울캠 총학생회 선거에서 후보자 미등록으로 선거가 무산됐다. 국제캠은 경선이 확정됐으며 서울캠은 내년 1월부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국제캠은 ‘Linkhu’(링크) 선본과 ‘코어’ 선본이 경선한다. 링크 선본은 박세욱(건축학 2018) 정후보와

〈단과대 학생회 총선거 입후보 명단〉

선거구	선본명	정/부후보자
경영대학	WAYVE	장: 강민욱(경영학 2020) 부: 유지민(경영학 2022)
호텔관광대학	stage	장: 김나현(문화엔터테인먼트학 2023) 부: 안시현(호텔경영학 2023)
이과대학	EVEN	장: 조성원(지리학 2023) 부: 안진령(물리학 2024)
생활과학대학	사계	장: 나영흠(주거환경학 2023) 부: 이정하(의상학 2023)
한외과대학	희들	장: 김한결(한의학 2022) 부: 홍원준(한의학 2022)
약학대학	약동	장: 정예원(약학 2022) 부: 김나현(한약학 2023)
간호과학대학	피네	장: 박진서(간호학 2023) 부: 안세형(간호학 2023)
치과대학	한결	장: 김가연(치의학 2022) 부: 박종현(치의학 2022)

※무용학부는 입후보 공고를 하지 않음

선거구	선본명	정/부후보자
예술디자인대학	D&	장: 신건(도예학 2021) 부: 오재빈(환경조경디자인학 2022)
전자정보대학	Sketch	장: 이유찬(전자공학 2023)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새벽	장: 박현빈(컴퓨터공학 2023) 부: 강지현(컴퓨터공학 2023)
응용과학대학	ONU	장: 이우경(응용수학 2020) 부: 김지은(응용화학 2023)
국제대	Venture	장: 조성운(국제학 2021) 부: 정하람(국제학 2021)

총학 선거, 서울 무산, 국제는 경선 상대 선본 정보 탈취 이의제기도

박준서(컴퓨터공학 2020) 부후보가, 코어 선본은 박병준(국제학 2017) 정후보와 김윤조(시각디자인학 2021) 부후보가 출마했다.

한편, 후보 등록 마감 하루 전인 지난 12일 링크 선본이 코어 선본의 정보를 탈취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의가 코어 선본 측에서 제기됐다.

코어 선본은 “링크 정·부후보 지시에 따라 소속 선본 임원이 코어의 주요 정보를 확보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을 언급해 선거시행세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이의를 선관위 측에 제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링크 선본 구성원이 코어 선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원 명단, 본부명, 로고, 슬로건, 임원진 구성을 요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 14일 링크 선본 측에 경고조치를 내렸고, 다음날 사과문을 게시했다. 코어는 재심을 요청했으나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희대학교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연구자 226명 시국선언〉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나는 패허 속을 무고롭게 살고 있다.

나는 매일 뉴스로 전쟁과 죽음에 대해 보고 듣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전쟁에 연루되고 있다고 있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평화와 생명, 그리고 인류의 공존이라는 가치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가치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역사의 이름이 부박한 정치적 계산으로 짓밟히는 것을 보았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보편적 인권과 피해자의 권리를 위해 파출된 자난하면서 존엄한 역사에 대한 경의를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여성과 노동자와 장애인과 외국인에 대한 박탈한 혐오와 적대를 본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모든 시민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사회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이태원 참사 이후 첫 강의에서 출석을 부르다가, 대답 없는 이름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알지 못했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학생의 안녕을 예전처럼 즐거움과 기대를 섞어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안타까운 젊은 청년이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어도, 어떠한 부조리와 아집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지는지 알지 못했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군휴학을 앞두고 인사하러 온 학생에게 나라를 지켜줘서 고맙고 건강히 잘 다녀오라고 격려하지 못한다.

나는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졸업생이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팔다리가 번쩍 들려 끌려 나가는 것을 보았다. 더 이상 나는 우리의 강의실이 어떠한 권력도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절대 자유와 비판적 토론의 장이라고 말하지 못한다.

나는 파괴적 속도로 진행되는 대학 구조조정과 함께 두 학기째 텅 비어있는 의과대학 강의실을 보고 있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대학 교육의 토대가 적어도 사회적 합의에 의해 지탱되기에 허망하게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매일 수많은 격노를 듣는다. 잘못을 해도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격노의 전언과 지리한 핍박만이 허공에 흩어진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잘못을 하든 사과하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존중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매일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경계가 무너지며 공정의 최자선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고 듣는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공정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성실한 삶을 꾸려가는 것이 인간다운 삶의 보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매일 신뢰와 규범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규범을 지키는 것이 공동체 유지의 첩경이라고 말하지 못한다.

나는 매일 수많은 거짓을 목도한다. 거짓이 거짓에 이어지고, 이전의 거짓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진실을 담은 생각으로 정직하게 소통하고자 말하지 못한다.

나는 매일 말의 타락을 보고 있다. 군림하는 말은 한없이 무례하며, 자기를 변명하는 말은 오히려 국어사전을 바꾸자고 고집을 부린다. 나는 더 이상 강의실에서 한 번 더 고민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말을 건네고 서로의 말에 경청하고자 말하지 못한다.

나는 하루하루 부끄러움을 쌓는다. 부끄러움은 굳은살이 되고, 감각은 무디어진다.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며, 기대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나는 하루하루 인간성을 상실한 절망을 보고 있고, 나 역시 그 절망을 달아간다.

어느 시인은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썼다. 하지만 그는 그 절망의 암자락에 ‘바람은 먼 데에서 오고 /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리라’는 미약한 소망을 깨달 같은 글씨로 적어두었다.

나는 반성한다. 시민으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나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나는 취약한 사람이다. 부족하고 결여가 있는 사람이다. 당시 역시 취약한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는 취약하기 때문에 함께 목소리를 낸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인류가 평화를 위해 함께 살아갈 지혜를 찾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역사의 진실 앞에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모든 사람이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갖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배려하는 방법을 찾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이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자유롭게 생각하고, 스스로없이 표현할 권리를 천명하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우리가 공부하는 대학을 신뢰와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잘못을 사과하는 윤리를 쌓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신중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정한 규칙을 찾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서로를 믿으면서 우리 사회의 규칙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진실 앞에 겸허하며, 정직한 삶을 연습하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존중과 신뢰의 말을 다시금 정연하고 싶다.

우리는 이제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며, 현실의 모순을 직시하면서 만들어갈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일지 토론한다.

우리는 이제 패허 속에 부끄럽게 머물지 않고, 인간다움을 삶에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말과 현실을 발명하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낸다.

2024.11.13
경희대학교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연구자